

꽃밭 스치는 바람같은 21명 스님의 법향



바람이 꽃밭을 지나오면
글 사진 문윤정
우리출판사 펴냄
1만3천원

몇 달 전 <걷는 자의 꿈, 실크로드>를 펴냈던 문윤정 작가가 이번에는 선지식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전해들은 감로법문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가져왔다.

이 책에 소개된 스물 한 명의 스님들은 저마다 각자의 자리서 수행력을 쌓아 온 스님들이다. 저자는 이 중 가장 인상적인 선지식으로 지리산 연암토굴서 수행하는 도현 스님을 꼽았다.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던 저자는 '작은 것들이 내뿜는 아름다움'에 우선 압도당했다. 3.5평의 작은 집과 작은 연못, 손바닥만한 수각, 그리고 검은 고무신 한 켤레가 놓인 작은 섬들이 그것들이다. 누워서 만세 부르기도 어려운 가로 다섯 자, 세로 여섯 자짜리 작은 불단이 있는 방에서 도현 스님은 16년째 홀로 수행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전통수행법인 간화선과 남방 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모두 섭렵한 수행자이다.

도현 스님은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지

나치게 해야 합니다. 한 번 떠오르는 상념들은 되돌려 보낼 수도, 붙잡아 둘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상념들이 떠오르지 않도록 막을 수는 도저히 없어요.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켜 볼 뿐,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대해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라고 값을 매기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이 사마이고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이라며 일상의 삶을 관조하고 알아차릴 것"을 강조했다.

연암토굴서 수행하는 도현 스님 인상적 명성 스님…"기도는 복짓는 삶 사는 것"

철우 스님, "행복도 소유지족 누리는 것"

또한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을 만난 저자는 미국서 유학 한 자신의 딸을 출가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깊은 존경심과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스님 말씀 중 "기도란 복 짓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에 공감했다고 한다. 108배나 엮불만 기도인줄 알았는데 명성 스님의 이 말을 듣고 언행, 보시 등 일상 생활서 하는 바른 행동도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참선수행만이 불교수행의 모든 것처럼 요구되는 요점 불교계 풍토

와 달리, 이 책에 모신 스님들의 수행 방식은 다양하다. 참선, 절, 사경, 간경 수행 등 저자가 만난 스님들의 정진법은 다종다기하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권하는 수행법 또한 자신들이 이제까지 수행해 온 경험에 따라 제각기 다르기는 하나 가장 쉽고 바른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 하지만 깨달음을 향한 목표는 모두가 같으며, 또 스님들의 수행과 깨달음이 곧 중생의 깨달음으로 회향되고 있음을 저자는 놓치지 않는다.

그 자신이 선승인 학림사 대원 스님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도우는 것이 선이라고 했어요. 여러 모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선이요. 일체중생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만 산다면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이가 부처님 마음으로 사는데 그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선교(禪敎)를 겸수한 함월사 우룡 스님은, "참회가 바로 불공인데 먼저 가족에게 참회하고 또 자신에게 참회하여야 합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침저녁으로 가족에게 삼배"를 하라며, "가족을 부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한 절에 오는 것이 죽는 것이요, 집에서 가족에게 예불 올리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고 설명했다.

사경 수행자 서암정사 원은 스님의 사경

공덕도 가슴에 와 닿는다. "사경 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기도와 함께 다른 이들의 행복과 우리 사회가 밝아지기를 발원하는 것이 더 귀하지요. 글 한 자에 절 한 번, 혹은 글 한 줄에 절 한 번을 할 만큼 경건한 마음자세로 사경 하다보면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라고 피력했다.

율사인 파계사 철우 스님의 행복론을 들으면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알게 해준다. "행복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쓸데없이 큰 욕망 버리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소욕지족(所欲知足)을 누리라는 것이지요. 방이 수십 개라도 내가 누워 잘 곳 한 칸이요, 땅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 묻힐 곳은 반 평이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과연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며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행복이 찾아옴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현재 투병생활 중인 보림사 지묵 스님에 대한 안타까움도 개인적으로 밝혔다. 문윤정 작가는 "이 책에 나온 것은 스님이 병이 나시기 2년전에 만나 뵈고 쓴 인터뷰인데, 스님은 자기를 찾아 숨어지내는 시간을 자주 가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법정 스님과도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해 주셔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고 회고했다.

김주일 기자 kimj127@hyunbul.com

'계율'은 좋은습관 길들이기와 선행 실천하는 것

계율, 꽃과 가시

원영 스님 | 담앤북스 펴냄 | 1만3800원



이 책은 2600년 전 인도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수행할 때의 생활 모습과, '율(律)'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렇게 제정된 율이 각각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을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로 활용해 현재 한국불교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현상들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율장을 통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승가라고 하는 출가수행공동체의 생활상'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율장이라고 하는 불교의 역사적 기록물을 읽으면서 '승가'라고 하는 조직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존속시켜 나갈 것인지 가능해 가며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모두 3장으로 나누어졌는데 각각의 이야기는 모두 현대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수행하면서 직접 겪은 경험담을 말머리로 열면서 2600년 전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핀다.

'버리다' 편에서는 불교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출가, 안거와 수행, 해제, 소임, 법랍과 토론, 여성 출가자, 장애인 출가, 파승 등과 관련하여 당시 승가공동체의 상황과 생활과 규범들을 알 수 있다.

'출가'와 관련하여 저자는, 부처님은 진리를 추구하여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일깨움으로써 그들을 출가의 길로 이끄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현재, 유일신이나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믿음이 가지 않고 그렇다고 절대자의 존재를 믿을 정도로 순박하지도 않은 젊은이들에게 불교의 출가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합리적인 안목을 제시해 준다고 말한다. '연다' 편에서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사찰, 도량 불사, 음성공양과 산사음악회, 객승과 객실문화, 삼배와 인사문화, 걸말과 자동차, 스님과 산행, 정법(淨法), 정인(淨人) 등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율장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자

신이 머물 공간에 집착을 보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의복에 욕심을 내는 비구가 있어, 개인 수행자의 크기를 제한했으며 옷도 세 벌만 갖추라는 삼의(三衣)의 규정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재미나다.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딱딱한 계율 가운데 일종의 편법으로 활용되어 승통을 띠어 준 '정법(淨法)' 제도가 존재했음을 읽으면서는 예나 지금이나 어디든 '구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버리다' 편에서는 마나타와 왕따, 술과 중독, 육식과 살생, 나무심기, 보시에 대한 생각, 불교와 정치인, 화상, 자자(自恣)와 쓴소리 등 불교가 이 시대에 어떻게 가치 있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왕따에 관해서는 '우선은 즐겁고 윤택한 말 한마디를!', 음식 쓰레기와 관련하여서는 '세상은 적당량을 털어 남김없이 먹는 음식문화가 대세'임을 강조하고, 나무 심기와

부처와 제자들 수행 모습 소개 승가와 조직 변천사도 조명

관련해서는 '미래의 봄은 더 이상 당연하게 주어지는 봄이 아니'라고, 쓴소리와 관련하여서는 '현명한 사람은 바른말 쓴소리의 가치를 알기 마련'이라고 일갈한다.

'버리다' 편에서는 불교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출가, 안거와 수행, 해제, 소임, 법랍과 토론, 여성 출가자, 장애인 출가, 파승 등과 관련하여 당시 승가공동체의 상황과 생활과 규범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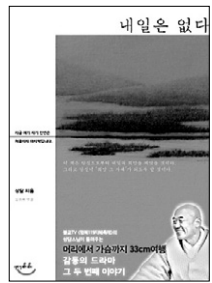
'출가'와 관련하여 저자는, 부처님은 진리를 추구하여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일깨움으로써 그들을 출가의 길로 이끄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현재, 유일신이나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믿음이 가지 않고 그렇다고 절대자의 존재를 믿을 정도로 순박하지도 않은 젊은이들에게 불교의 출가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합리적인 안목을 제시해 준다고 말한다. '연다' 편에서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사찰, 도량 불사, 음성공양과 산사음악회, 객승과 객실문화, 삼배와 인사문화, 걸말과 자동차, 스님과 산행, 정법(淨法), 정인(淨人) 등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율장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자

"내일을 걱정 말고 오늘에 충실하자"

내일은 없다

성담 스님 지음 | 셀프컬처리서치 펴냄 | 1만4천원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살아 있는 것들이 가진 당연한 마음이라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해 눈 감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당신 앞에 이 빨을 드러낸 사자가 한 마리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합니다. 그 덕분에 그것이 없는 것과 같은 수준의 편안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감아도 사자는 자기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얻은 편안함은 진짜일까요? 차라리 눈을 뜨고 그 사자를 길들이든가 도망이라도 치면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의 '내일'을 걱정한다. 그래서 나를 잘살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내일을 생각하느라 불안과 걱정에 시달린다. 그런 이유로 '나'는 지금을 살지 못하고, 여기를 떠나 다른 곳에 가있다. 예를들

어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의 아이가 행복하게 뛰어노는 것을 보고 공부를 안해서 형편없이 사는 미래를 경험한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다. 인상을 잔뜩 쓰고 걸어가 아이의 손목을 틀어쥐고는 공부안하고 뭘을 하냐고 소리를 지른다. 이것은 그저 일례이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식으로 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도록 강요한다.

우리는 '나의 내일'을 걱정하기 이전에 먼저 '나'가 무엇이고 '내일'이 무엇인지 고찰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지금 여기'를 발견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질 것이다. 대신에 지금 여기에서 희망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또, 과거의 기쁨이나 슬픔도 사라질 것이다. 그저 지금 여기에서 기쁨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흔히 나의 세상과 다른 이의 세상이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책은 그 누구도 아닌 지금 여기 있는 당신의 세상에 관해 말한다. 그리고 유일한 통로, '깨달음'을 통해 그것을 깨어나게 할 것이다. 내일이라는 환상을 깨고 당신으로부터 내일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 존재하는 실재를 보게 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명상, 과학과 종교 만나게 하는 기술

명상의 기술

장길성 지음 | 나미세 펴냄 | 1만2천원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명상도 처음엔 호기심에 설레고 수련이 잘되지 자신감도 생기고 재미있다. 하지만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뭔가를 쫓아는 것 같아지면서 호기심이 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멈춘다. 게으름과 교만 때문이다. 어느 순간 졸음이 오고 '이렇게 앉아 있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회의도 일어난다.

명상 수련, 수련은 연습이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명상은 명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환상을 보았다거나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목적일 수 없다.

명상과 생활은 하나다. 일상과 명상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하나는 과학하

는 마음이고 하나는 종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두 마음의 근본 성질은 같다. 바로 탐구하는 마음이다. 탐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삶이 정체되고 결국 퇴행에 이른다. 탐구하는 마음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신의 선물이다. 과학은 밖으로의 탐구이고 종교는 안으로의 탐구이다. 그리고 과학과 종교를 만나게 하는 기술이 명상이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만 든다. 하지만 고통은 명상의 좋은 대상이다. 온몸이 아플 때에는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아픈 것이 몸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어깨가 있는지, 다리가 있는지, 무릎에 연골이 있는지 모른 채 살았었는데 아프니까 그때서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없으면 생각을 넘어설 수 없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혼란들이 오히려 명상 세계, 즉 알아차리는 데서 오는 평화와 고요, 지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디딤돌이 된다.

이와 함께 죽을 명상도 삶을 더욱 깨어나게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게 여섯 모든 일, 사랑, 물건, 꿈, 업적 등과 아무 상관없이 없는 세계를 묵상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사)동국불교 조계종 입종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 정진하고 있는 본 종단은 부산광역시하 2013-4호 사단 법인체로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들을 본 종단 종도로서 초빙코저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후원) 동국불교 문화예술연합회
동국불교 협동조합
동국불교 조계종신도연합회

(사)동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산시 서구 천마로 113번길 16-1 (남부민동)

연락처 051) 256-1005
팩 스 051) 256-8005
직 통 010-3262-1005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안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차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활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感 체험
	샤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혼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스트레칭필, 칼라차크라, 용천보탑, 배요온대

www.범왕정사.net
010.3487.0035

기문둔갑 강좌 안내
www.gimun.net

강의과정

- 기초반 : 기문조식법 및 원리론
- 중급반 : 흥국수 통기론 및 종합해단론
- 고급반 : 단시 및 병방론
- 특강반 : 기문작명, 기문택일, 기문양택

강의시간(단체반)

- 본원 오전반 - 10:00(월~토) : 주1회 100분
- 본원 저녁반 - 19:00(월·화·수·금·토) : 주1회 100분

수강료(단체반)

- 주1회 월 20만원 (특강 월 30만원)

강사
○담당교수 : 손혜림 (경력사향)
· 경희대학교 13년째 기문학 담당교수
· 34대 기문전맥의 대청궁청구대학당 대표
· 대한기문학회 대표
· 손혜림 기문명리원 대표 (기문해설프로그램 및 기문작명프로그램 개발)

교육장소

- 손혜림 기문명리원, 대한기문학회 본원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소핑 4층 11호 지하철 3,7,9호선 서울고속터미널역 8-1번출구

기문둔갑은 전맥을 바탕으로 공부해야만 정확한 해단을 할 수 있습니다!
02)3476-3433 / 010-2376-3433

공 고

(사)대한불교 조계종(원조계종)
재 창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재 창종일 : 2012년 9월 20일>

기존 종도 분들은 **입종과 사찰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1장, 입종서류작성

※ 미 등록시 2013년 6월 30일 이후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함, 간판사용 및 종단이름 사용금지됨.

※ 전 총무원장 만호스님이 12년 6월 종도분들께 통보도 없이 종단을 해체하고 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하므로 인해서 심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뜻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재 창종을 하였습니다.

(사)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호법원
연락처 053)965-8215, 010-9020-8215